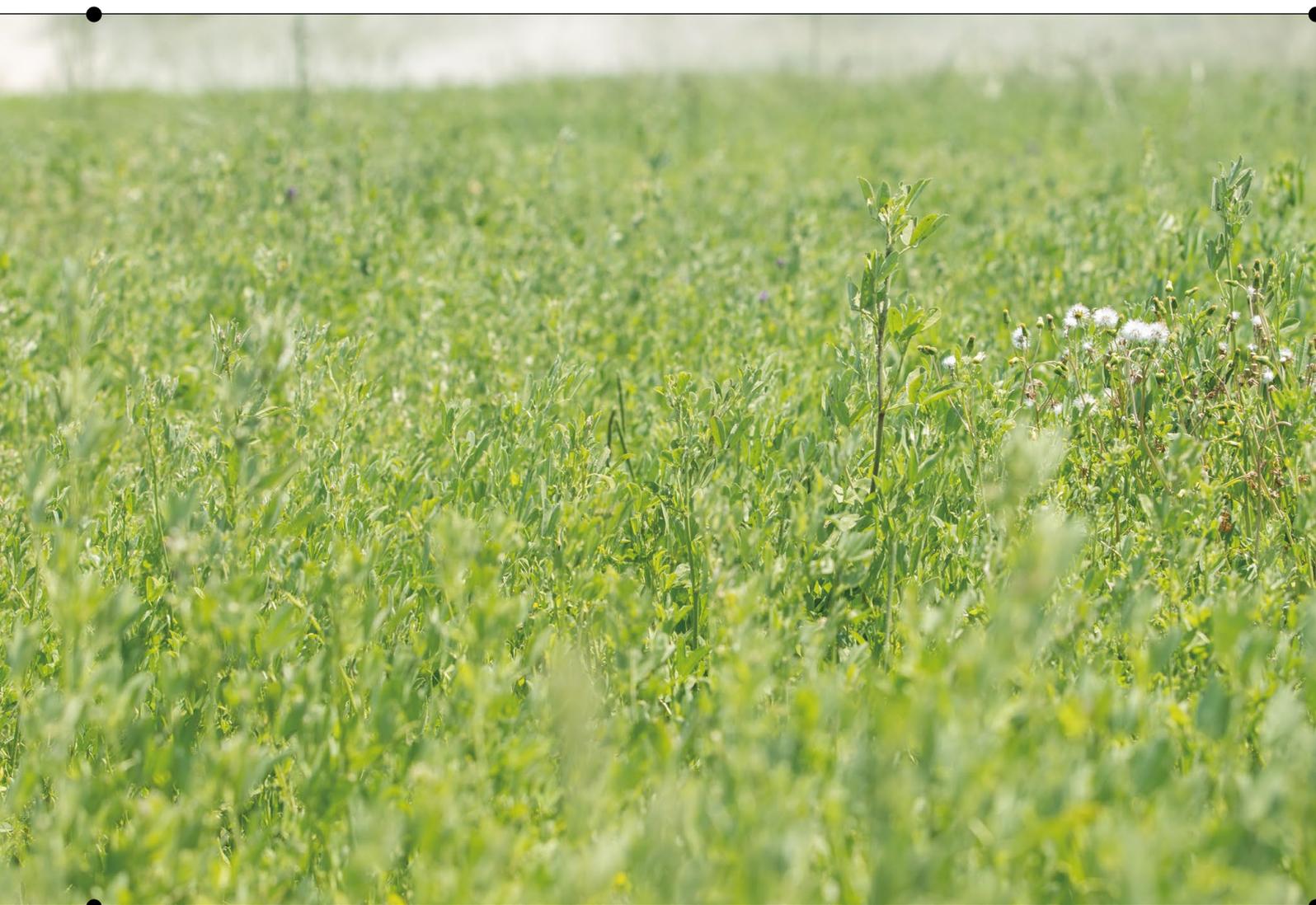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최초 알팔파 품종개발 및 대규모 재배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높아 목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국내 생산이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품종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팔파 자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생산성과 기후적응성이 우수한 알팔파 품종과 대규모 재배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산 알팔파가 연간 수입되는 알팔파의 50% 대체 시 외화 절감 효과는 약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알팔파 수입액('20)

 1,344
억원

연간 알팔파 수입량

2010  124 천톤

2020  210 천톤

10년간 69% 증가

알팔파 건물 생산량

 17
톤/ha

수입 알팔파 50% 대체시 외화절감

 672
억원



알팔파 계통포



현장 실증재배 시험포



건초 제조

연구배경

- **[현황]** 알팔파는 생산성과 영양이 가장 우수한 사료작물이나, 전량 수입에 의존
 - (알팔파의 우수성) 생산성 및 사료가치 최고(일명 목초의 여왕)
 - * 조단백질 함량(%): (알팔파) 18~22 (톨페스큐 등 목초류, IRG) 8~12
 - (고정관념) 국내서 알팔파 재배는 불가능 → 대량재배 농가 전무
 - * 토양조건이 알팔파 재배에 불리: 토양산도 ↓, 인산함량 ↓, 미량성분 ↓
- **[필요성]** 국내 생산여건에 맞춘 품종 및 이용기술 개발 필요
 - * 수입량: ('10) 124천톤 → ('20) 210 (10년간 69% 증)

개발성과

- **[품종개발]** 생산성 및 기후적응성이 우수한 우량 계통 육성: 3계통('20)
 - ('16)유전자원 특성평가 → ('18)우량계통 선발 → ('20~'22)생산력검정 지적시험
- **[재배이용]** 안정 재배 및 저장·이용기술 개발
 - 파종시기 시험(생산량): (추파) 9월(21톤/ha), (춘파) 2월(12톤/ha)
 - 여름잡초(바랭이, 어저귀 등) 방제 제초제 2종 선발: 방제율 80~90%
 - 양분손실(잎 탈락) 최소화 저장방법: 볏짚 2일 건조 시 수분(85%→40%)

파급효과

- **[기술적효과]** 토양조건 개선을 통한 재배 가능성 검증
 - * 연간 건물 생산량(톤/ha): (알팔파) 14~18 (톨페스큐 등) 10~12 (IRG) 9~12
- **[경제적효과]** 연간 수입 알팔파 50% 대체 시 외화 절감: 672억원
- **[사회적효과]** 국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농가인식 변화(양적→질적)